KOICA
한국국제협력단

Together KOICA

2020
vol.2



특집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성장을 향한 희망의 원동력을 키우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하여 1991년 설립된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입니다. 코이카는 전 세계 44개 사무소를 기반으로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별프로그램(프로젝트·개발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글로벌연수·국제기구협력·민관협력사업·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재난복구지원·긴급구호),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인권·환경·질병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
코이카가 이루어나가겠습니다.

Together
KOICA
2020 vol.2

<Together KOICA>는 코이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식지입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코이카가 전하는 전 세계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Together KOICA>는 모바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미경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0-01-034

발행일 2020년 2월 25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KOICA 국민소통실
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코이카 뉴스레터 <Together KOICA>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08



22


50

about KOICA

06 파라과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파란불을 켜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08 전 세계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실마리를 발견하다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10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 비숙련 의료인력의 활동이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영향평가 결과

12 목숨을 위협하는 폭발물의 중심에서 '평화'를 외치다
UNMAS DR콩고 폭발물 및 무기 제거를 통한 평화 및 안정화 사업

14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며 르완다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다
르완다 영양중점농업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

16 '아랍의 봄'에 어울리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다
코이카 'K-전자조달시스템'의 확산

18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을 떠나다

20 우정의 협력, 평화와 번영을 통해 꿈꾸는 새로운 미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신남방) ODA전략

특집 에티오피아

22 에티오피아 경제 성장의 미래 원동력을 키운다
아디스아바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26 희망을 향해 홈런 볼을 날린 에티오피아 최초 야구단 HOPE
아디스아바바 LG-KOICA 희망 여성 야구단

32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 미술을 가르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보라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

36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6,037명
가장 치열했던 6.25 고지전에 서다

38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에티오피아 국립 박물관
루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당신

40 에티오피아 커피 세레모니
그 경건하고도 매혹적인 의식에 대하여

42 커다란 접시 한가득 넘치는 정
에티오피아 전통 음식 인제라

우리는 KOICA입니다

44 더 나은 코이카로의 변화를 주도하다
코이카 국민소통센터

46 코이카의 혁신을 선도하다
코이카 경영혁신기획팀

48 개도국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시민단체와 함께합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50 사랑에 후진 따위 없는 직진남,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코이카 서아프리카실 이세진 직원
& 배우자 왕고 웬드라타 쟝보스코 씨

info KOICA

54 자연과 놀자, 지구를 지키자!
자연이 준 선물로 재미있는 장난감 만들기

56 이태원에서 떠나는 전 세계 미식여행
세계 음식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파라과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파란불을 켜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파라과이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다. 1965년 중남미 국가 최초로 한인 이민을 수용해 현재 중남미 상당수의 교민(약 5,000명)이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도로, 철도, 수상, 항공 등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후해 열악한 상황이다. 또 이에 대한 관리 역량이 미흡해 수출과 외자 유치는 물론 지역 간 원활한 이동과 균형 발전도 어려운 형편이다.

어려움을 딛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다

파라과이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협소한 경제와, 내륙국이라는 제약요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촉진,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4년 12월 파라과이 정부는 ▲빈곤의 감소와 사회개발 ▲포용적 성장 ▲세계 경제로의 편입 세 가지의 목표를 내건 국가개발계획(2014-2030)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파라과이의 주요 공여국인 우리나라도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지역개발, 통신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 해당 분야에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및 도로 타당성 조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2018년 7월에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공원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파라과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순시온시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턱없이 부족한 도로 내 안전시설이다. 파라과이 '2013년 범죄 및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 도로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교통안전 규정에 대한 미준수이며, 공공 및 민간 운전교육 및 안전의식 모두 국제 평균 이하로 보고돼 있다. WHO의 2018년 세계도로교통안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파라과이 인구 100,000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추정치가 22.7%에 달한다(한국은 9.8%).

이에 코이카는 파라과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2018년 7월 아순시온시에 국내 중소기업 ㈜트라콤과 함께 파라과이 최초의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공원을 구축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공원은 안전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를 위해 신호등, 교육 판넬 및 OX퀴즈 단말기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작해, 어린이들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확보했다. 다음은 파라과이 어린이교통안전교육공원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다.

	내용	
	활동명	활동내용
프로그램	1. 교통안전 시청각 교육	그림, 동영상, 인형극 등을 이용한 교육
	2. 횡단보도 안전 교육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교육
실내교통 안전교육	3. 교통표지판 알기	파라과이 교통표지판 활용 교통 수칙 교육
	4. 응급상황 대처법	사고발생 시 대피 방법, 신고 방법 등 모형 연출을 통해 학습
	5. 자전거 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및 안전용구 착용법 교육
	6. 교통안전 O/X 퀴즈대회	전반적인 실내 교통안전 교육 및 퀴즈를 통한 참여 유도
실외교통 안전교육	7. 교통안전 체험	카트를 이용한 체험 교육 및 관련 사고 예방 교육
	8. 교통안전 체험	보행자 횡단보도 체험 및 안전 교육
	9. 교통표지판 알아보기	교통표지판 그림 교육
	10. 교내상설 보행자 안전교육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내 모의 상설 프로그램

개원한 2018년 7월부터 그해 12월 7일까지 53개의 교육기관에서 방문해 약 6,100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 기존 교통교육장의 평균 연간 이용자수가 약 5,000명인 데 비해, 해당 사업을 통해 설립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공원은 개원 1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대상자의 95%가 만족(매우만족 81%, 만족 14%) 의사를 내비쳤고, 폭발적 수요로, 2019년 2월까지 사전예약이 완료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시행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교통 ·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ITS 전문기업인 ㈜트라콤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한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트라콤은 파라과이 외에도 남미 여러 지역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파라과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다.





전 세계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실마리를 발견하다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 약 56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조기출산에 의한 합병증과 더불어 폐렴, 설사,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코이카의 실험

코이카 보건전문관으로 연구를 진행한 차승만(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아동 중 95% 이상은 81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앞서 밝혔듯이 폐렴, 설사, 말라리아 등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로 사망하고 있다. 산모가 임신 혹은 분만 전후에 사망하는 모성사망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아동사망과 모성사망을 줄이는 데에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전문 보건인력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전문 의료 인력의 양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고급의료 인력으로 분류되는 이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급의료 인력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기에도 부족하다. 하지만 아동 사망을 야기하는 폐렴, 설사, 말라리아 등의 질환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마을 자원봉사자(Community Health Volunteer, CHV) 제도'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수 주에서 수 개월 간 필수적인 기초보건교육을 이수케 한 후, 이들이 마을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우선 아동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마을 자원봉사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이 제도의 효과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했다. 그렇게 코이카는 2013년부터 가나 보건청과 함께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의 지원을 시작했다.

CHV 제도, 질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다

먼저, 주민들 중 읽고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며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선발했다. 이들과 함께 자원봉사자 한 명당 40가구를 배정해 가정 방문을 하도록 하는 '마을 자원봉사자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5세 미만 아동이 고열이 나면 자원봉사자가 신속진단키트로 말라리아 여부를 검사하고, 양성 반응 시 보건소로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재확인한 뒤 약물 등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소 한 달에 한 번 가정방문을 통해 질병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이 담긴 보건위생 관련 10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교육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영향평가 결과 마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대조군 대비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마을 주민들의 손씻기 비율은 39%,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 비율은 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에서 5세 미만 아동의 설사 유병률이 17.8%에서 7.1%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마을 내 5세 미만 아동 보유 가구의 70% 이상을 방문하고, 가구 당 평균 30분 이상 머물며 상담한 경우, 대조군과 대비하여 설사 발생률은 77%, 말라리아 발생률은 31% 낮았다.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큰 발걸음

코이카에서 진행한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개도국에서 보건의료 활동을 진행한 것에서 나아가 과학적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하고, 도출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발표된 연구 결과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의 평가는 비숙련 보건인력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예방적 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문 보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내에 막대한 비용투자 없이 아동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는 국제 저널 〈Plos Medicine〉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유사 사업 기획 시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티 없이 맑은 미소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전 세계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 비숙련 의료인력의 활동이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영향평가 결과

설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수칙인 손 씻기,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살충처리 모기장 설치하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등 최소한의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설사와 말라리아를 예방하여 개도국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숙련 의료인력인 '마을 자원봉사자(Community Health Volunteer, 이하 CHV)'가 가정에 방문하여 위의 내용들을 꼼꼼히 교육했다.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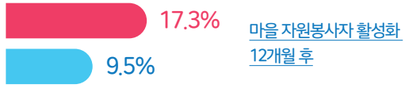
마을 자원봉사자(CHV)의 활동이 보건위생행태에 미치는 영향

먼저, '지역주민 생식보건교육 및 프로그램'이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 혹은 간병인의 손 씻기 행동, 아동의 살충처리가 된 모기장 이용,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마을 자원봉사자(CHV)가 가정에 방문하여 손 씻기, 취침 시 모기장 설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교육을 했고, 이것이 각 가정에서 얼마나 수행되는지를 확인했다.

실험군 마을	마을 자원봉사자 선정 후 활성화, CHV 1인당 40가구 할당, 매 가구 최소 2개월에 1회 방문
대조군 마을	마을 자원봉사자 없음

손 씻기 요리하기 전 /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전 / 배변 후 / 식사 후 / 악수한 후 위 다섯 가지 상황에서 늘 손을 씻는 주민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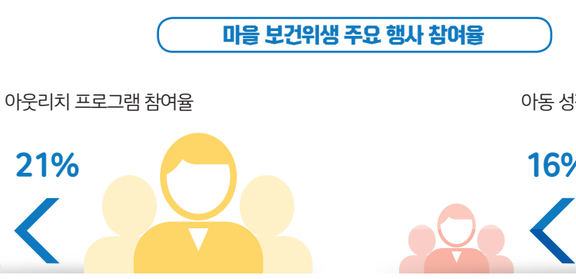


말라리아 예방 살충처리 모기장 활용률





마을 보건위생 주요 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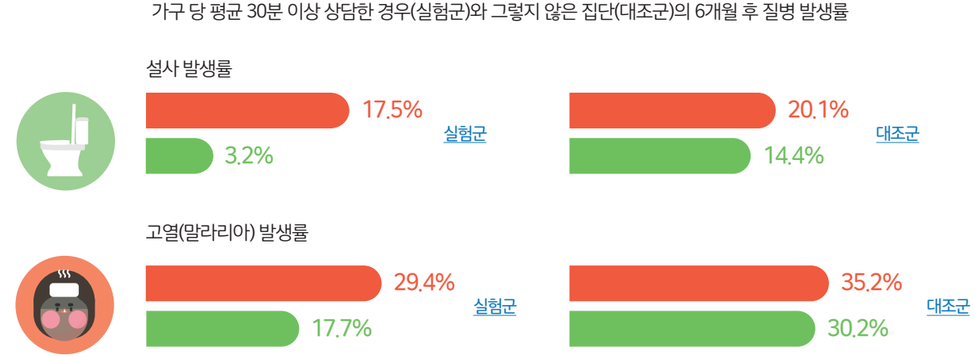


마을 자원봉사자(CHV)의 가구 방문



CHU 활성화가 마을 내 아동의 설사 및 고열(말라리아) 발생에 미친 효과

마을 자원봉사자(CHV)가 마을 내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70% 이상을 방문하고
가구 당 평균 30분 이상 상담한 경우(실험군)와 그렇지 않은 집단(대조군)의 6개월 후 질병 발생률



※ 출처: Ma Y, Sudfeld CR, Kim H, Lee J, Cho Y, Awoonor-Williams JK, et al. (2019) Evaluating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volunteer home visits on child diarrhea and fever in the Volta Region, Ghana: A cluster-randomized controlled trial. PLoS Med 16(6): e1002830.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2830

목숨을 위협하는 폭발물의 중심에서
'평화'를 외치다

UNMAS DR콩고 폭발물 및 무기 제거를 통한 평화 및 안정화 사업

콩고 민주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이하 DR콩고)은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상에 위치해 있는 국가로, 수도는 킨샤사이다. 1878년 벨기에가 국제콩고협회를 조직하여 통치하였으며, 1960년 6월 30일 최초의 총선거를 통해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 이후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잔류 폭발물의 위험

1960년 독립 이후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DR콩고는 2016년 3월 대통령선거와 입법선거가 연기되면서 정치적 폭력과 항의시위가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와 실향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 분쟁 발생 지역에는 지뢰나 군수 탄약과 같은 전쟁 잔류 폭발물들이 생겨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DR콩고 주민들은 언제 발밑에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에 대한 불안함을 안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잔재물인 소량무기에 대한 불법 무장단체의 무기 유통 역시 빈번히 발생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청년들이 불법 무장단체 또는 DR콩고 동부 국경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에 가입하는 상황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다

하지만 폭발물의 위험 상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DR콩고 정부는 자원의 한계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폭발물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전쟁 잔류 폭발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DR콩고 정부, 유엔 지뢰행동조직(UNMAS)과 함께 국제기구 협력사업으로 'UNMAS DR콩고 폭발물 및 무기 제거를 통한 평화 및 안정화 사업'을 실시했다. UNMAS는 광산, 전쟁의 폭발 잔재물 및 즉석 폭발 장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유엔 산하 기관으로, 2002년부터 DR콩고에서 폭발 위험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DR콩고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발 위험 관리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코이카는 먼저, 폭발물 조사 및 제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2개의 시행기관을 선정,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전쟁 잔류 폭발물 제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 및 민간 경고 메시지에 대한 대응 및 운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발물 및 무기 위험 관련 NGO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3개의 NGO를 선정하여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를 제공했다. 이렇게 선정된 NGO는 폭발물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코이카와 UNMAS가 시행한 폭발물 안전 교육이 진행된 DR콩고 남키부주 Divin Maître 초등학교의 교장 호제뜨 마지망고 씨는 "우리 학교에 오셔서 조사와 지뢰 제거 활동을 완료한 UNMAS에 감사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에서 두려움 없이 놀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폭발물 안전 교육을 받은 앙뚜와네뜨 카빙가 학생은 "학교에 가는 길에 십자 표시가 된 물체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만약 잘 모르는 의심스러운 것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선생님께, 혹은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야해요."라며 교육받은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잔류 폭발물 제거가 가져온 지역 개발 가능성

잔류 폭발물 관련 위험 교육은 관련 지식이 없는 주민들의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잔류 폭발물 및 소형무기의 제거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피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 사회 발전 가능성은 곧 생계를 위해 불법 무장단체나 범죄단체에 가입하던 DR콩고의 많은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DR콩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잔류 폭발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코이카는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며
르완다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다

르완다 영양중점농업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

평균 수명 64.7세, 연령 대비 저신장 아동비율 38%, 5세 미만 아동 1,000명 당 50.3명 사망*…. 100세 시대를 넘어 200세 시대를 바라본다는 지금의 시대에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들일 수 있지만 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아프리카 르완다의 이야기다.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르완다 어린이들

르완다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최소개발국가에 속하는 곳으로, 1994년 발생한 르완다 제노사이드로 인해 악화된 경제 · 사회적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르완다는 높은 아동 영양실조 비율을 보이는데, 실제로 르완다의 5세 이하 아동의 주된 사망원인은 폐렴, 설사, 말라리아 그리고 영양실조 등이 있다. 이는 가정 내 식량 부족이나 부적절한 식량 활용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른 영양 섭취를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르완다 가정의 낮은 소득은 물론 이유식 등의 아동 식사와 영양에 대한 지식 및 실천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만성 영양실조 아동의 대부분은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소농가구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만성 영양실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료품을 공급하는 1차원적인 지원 방안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이에 코이카는 NGO 단체 더멋진세상, 월드비전과 함께 '르완다 영양중점농업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더멋진세상, 월드비전은 각각 르완다 '르와마가나' 지역과 '루치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영양중점농업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기술과 돌봄, 영양을 전파하다

첫 번째로 시행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영양중재법(PD/HEARTH) 교육'이다. 대상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음식 준비 기술과 이유식 제조법을 포함,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한 키친가든(가정 내 텃밭) 조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환아 기록부를 소지한 지역보건요원들이 활동하며 아동 질병을 케어하는 CIMCI(아동질병통합관리), 지역보건요원 및 보건전문가가 올바른 수유 방법과 돌봄 방법을 제공하는 MIYCN(임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섭취), 가정상황 및 생활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수, 출산 간격, 출산 시기, 단산 연령 등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FP(가족계획) 등의 세부 활동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영양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양보건센터를 건축하고, 르완다의 적은 농지면적과 기후변화, 경사지 농업 등의 특수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농법'을 도입,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향상해 지속 가능한 농법을 전파하였다. 이후 버섯 튜브와 다양한 작물(양파, 파, 오이, 당근 등)의 씨앗을 배분, 가정에서 재배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소농 가정을 대상으로 수혜자를 선정하여 염소, 돼지, 닭 등 작은 가축을 지원해 식이 다양성과 영양 공급의 기회를 높였다.

올바른 영양 섭취로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

사업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2019년 1월부터 6월 말을 기준으로 르와마가나 참가 아동 178명 중 143명이 900g 이상으로 체중이 증가하였고, 루치로 지역 769명 중 417명이 900g 이상 체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텃밭 조성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의 지식 향상도는 54%에서 96%로 뛰어올랐다.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환경을 조성해 시범농장을 운영 중이며, 훈련을 받은 200가구를 대상으로 염소 100마리와 돼지 100마리를 각각 배분했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협력기관과 함께 영양보건행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발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교육훈련, 시범 농장 조성, 친환경 농법 텃밭 조성 지원, 가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르완다의 영양중점농업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르완다 가정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여국에 대한 개도국의 의존도를 높이거나 자립 의지를 떨어뜨리는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협력국의 자립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작고 어린 생명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 출처: Rwand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2014-2015)







'아랍의 봄'에 어울리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다

코이카 'K-전자조달시스템'의 확산

튀니지는 '아랍의 봄'의 발상지다.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부패한 정부의 호화생활에 분노한 튀니지 국민들은 거리 시위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시민들의 분노를 십분 이해한 군부는 "시위를 진압하라"라는 정권의 명령을 거부했고, 23년간의 독재를 일삼던 정부는 2011년 간판을 내렸다. 부패한 정권을 척결한 국민의 제 1 요구 사항은 투명한 정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 중 하나가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이었다.

부패를 청산하고 청렴한 정권으로

2011년 튀니지 국민의 손으로 왕좌에서 끌어낸 벤 알리 대통령.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추산 8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그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면, 비리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가늠할 수 있다. 독재 정권의 부패상과 비례해 참혹할 정도로 추락했던 튀니지의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튀니지 국민들이 정권 교체 후 무엇보다 '청렴'을 원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에 코이카는 튀니지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한국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식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국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 중 하나다. UN은 2018년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조사 대상 193개국 중 온라인 참여 부문 공동 1위, 전자정부 발전 부문 종합 3위로 선정했고, 이전 10년 동안 줄곧 최상위권으로 꼽았다.[1] 비능률 · 부패구조의 청산에 고심하던 튀니지에 있어 한국 전자조달시스템은 현명한 한수였다.

변화는 놀라웠다. 코이카 중동중앙아실 김성욱 전임은 "튀니지 전자조달 등록업체 수는 100개에서 2016년 기준 5,000개로 늘어났으며, 해당 시스템의 자체 문제 해결률 역시 20%에서 100%로, 조달업무 소요 시간은 200일에서 129일로 단축되었다.[2]"라고 말했다. 튀니지 정부는 총리령(2018.8.31.)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법적 의무화했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정부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PES)을 '2015년 열린 정부 아프리카 지역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동지역 국가, 비능률과 부패의 고리를 끊다

이는 주변국에 영향을 미쳤다. 단 2년여 만에 비능률과 그에 따른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튀니지의 사례는 발 없는 말이 되어 타 국가를 코이카로 불러들였다. 2014년에는 요르단 정부가, 2018년에는 이라크 정부가 손을 내밀었다.

요르단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JONEPS) 구축 사업은 튀니지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기회였다. 코이카 중동중앙아실 오재혁 전임은 "현재 요르단 조달청 전체 입찰 거래(연 평균 1,596건) 중 98%가 JONEPS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공급업체의 90%, 즉 대부분이 해당 시스템을 활발하게 사용 중이다. 이전보다 입찰 절차 소요 시간은 약 70시간(건별) 단축되었고, 소요 비용 역시 약 $193.45(건별) 절감됐다."라고 사업 완료의 성과를 요약했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 역시, 공공조달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2018년 한국의 우수한 전자조달시스템 이식을 요청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다. 조달시스템의 상이함과 무슬림 국정 내부의 갈등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이라크 아르빌 지방정부 공공조달현대화 사업 담당인 송종인 PM은 "이라크의 경우 다민족국가이고 시아파 · 수니파의 갈등이 있으며 제1당의 영향력이 낮아, 국정운영에 흔들림이 많다. 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업의 구체적 결정사항이 달라져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튀니지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쌓인 노하우와 코이카의 대내외적 사업 위험 분석 및 발 빠른 대처로 방해 요인을 차근차근 해결했다. 벌써 2년째 순항 중"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체계적인 전략이 가져온 성과

중동 지역이 전통적으로 정세 불안정 및 사업 예측 불가라는 리스크를 껴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코이카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존의 건축 시공에 기인한 사업을 최첨단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기존 시스템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식하는 눈부신 성취를 끌어냈다.

코이카는 향후 튀니지 · 요르단에서의 눈부신 성과 및 이라크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전 지역에 공유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원활한 유지 보수에 매진, 언급한 세 국가는 물론 메나(MENA,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 투명성 증진의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1) UN 전자정부평가는 UN 경제사회처에서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참여 및 발전 부문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 각각 4위와 3위, 2018년에는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행안부, 2018.07.22.)

2) 월드뱅크(World Bank), 2018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을 떠나다

2019년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와 코이카도 25일 부대행사로'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사람·번영·평화의 가치를 담은 한-아세안의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개발협력 프로그램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다. 전쟁과 빈곤으로 인한 힘들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믿음과 상호 협력, 공동 개발로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코이카는 아세안의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앞장서왔다. 특히 CLMVIP로 불리는 중점협력국 6개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발협력을 펼쳐왔다.

*** CLMVIP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코이카는 한-아세안의 관계를 격상하고 '사람이 중심이 된 평화와 상생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공동체 발전을 위한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가치로 압축할 수 있다.

*** ㅅ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ㅅ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ㅅ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ㅅ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ㅅ그리고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사람



한국이 전쟁과 빈곤의 아픔을 딛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교육, 즉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 코이카는 아세안 대학들이 스스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과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사업*과 같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아세안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양성에도 힘쓸 것이다.

*** 한국 발전 과정에서 씽크탱크의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모델로 하는 연구기관**



평화

식민 역사, 국가 간 분쟁의 아픔과 내전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은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평화와 번영의 역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는 개발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코이카는 평화로운 미래공동체인 '한-메콩 평화마을'을 조성하고, 라오스,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미얀마와 함께 지뢰제거 - 피해자 지원 - 농촌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단의 상징인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선언한 것처럼 메콩지역의 불발탄, 지뢰 등 전쟁의 잔재를 없애고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번영

코이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의 선진적인 ICT 기술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반 시설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공공서비스를 용이하게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화와 교통 문제에 대처하는 스마트시티 건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상생 번영의 평화로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만든 현재가 아세안의 미래가 되고, 아세안의 미래가 곧 세계의 미래이자 더 큰 가치가 된다는 우리의 믿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중심으로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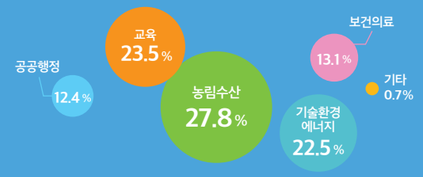
우정의 협력,
평화와 번영을 통해 꿈꾸는 새로운 미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신남방) ODA 전략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 지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코이카 역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필요한 바, 정부의 '신남방정책(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외교부의 '신남방 ODA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코이카의 핵심 가치인 4P(사람·평화·번영·환경)의 관점에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연계성 강화 및 개발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공동 이행 중이다.



코이카 대외무상원조 지원 분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교통	○	○		○	○	○
물관리/보건위생	○		○	○	○	○
지역개발	○	○	○		○	
교육	○		○	○		
공공행정		○		○		○
에너지		○	○			
기타					재해예방	환경보호

공여국별 아세안 6개국 ODA 지원 현황

일본	5,211.38
독일	1,187.92
한국	790.97
미국	75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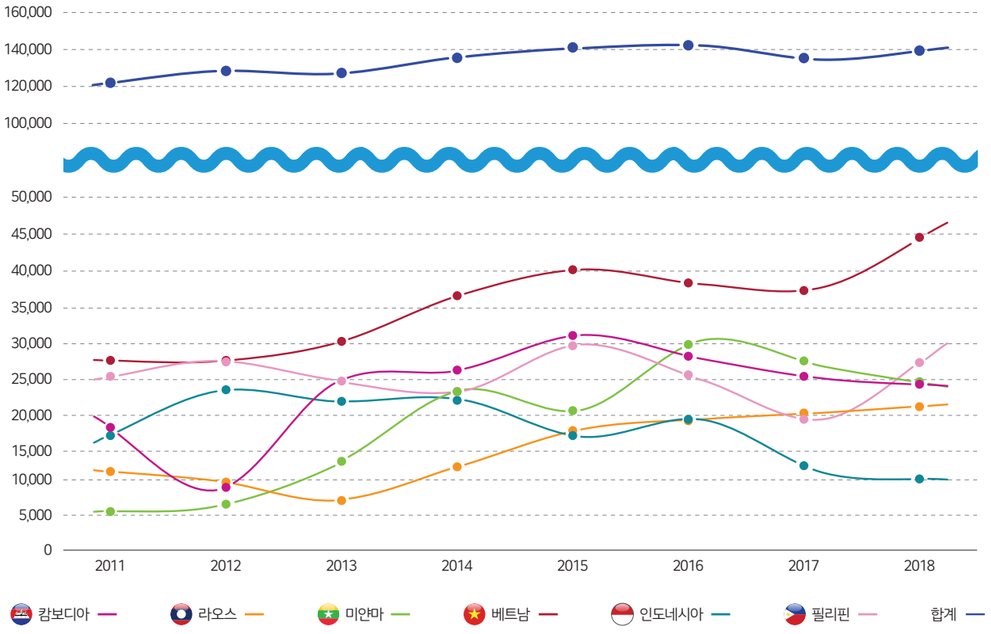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 출처 : OECD DAC Stats(2019.4)

코이카 아세안 6개국 대외무상원조 추이

(단위 : 백만 원)



* 출처: KOICA '18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18.10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ODA 전략 이행계획

비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상생번영의 평화로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축

목표(3S)

Scale Up
ODA 지원 규모 획기적 증액

Specific Thematic Approach
주제별 지원

Strengthening Partnership
연계·협업 강화

5대 지원 주제

정보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고등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도시개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교통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에티오피아 경제 성장의 미래 원동력을 키운다

아디스아바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춘추시대 성현 노자(老子)는 '수인이어 불여수인이어(授人以魚 不如授人以漁)', 즉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그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만 못하니라'라고 했다. 진심으로 어떤 이를 아낀다면, 단발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스스로 자립할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말이다.
2014년 11월, 코이카와 LG가 손을 맞잡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설립한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이에 한 가지를 더했다.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잘 낚을 '낚싯대'도 손에 쥐여준 것.
최첨단 기술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티오피아의 경제 자립 기반 확립을 꾀하려는 LG-KOICA 직업훈련원을 소개한다.

글 서혜원 사진 한상무

취업률 100%, 전자·IT분야 전문가 양성소

"오늘 아침에도 한 전기 · 전자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졸업 예정인 학생 중 20명을 자신의 회사로 보내 달라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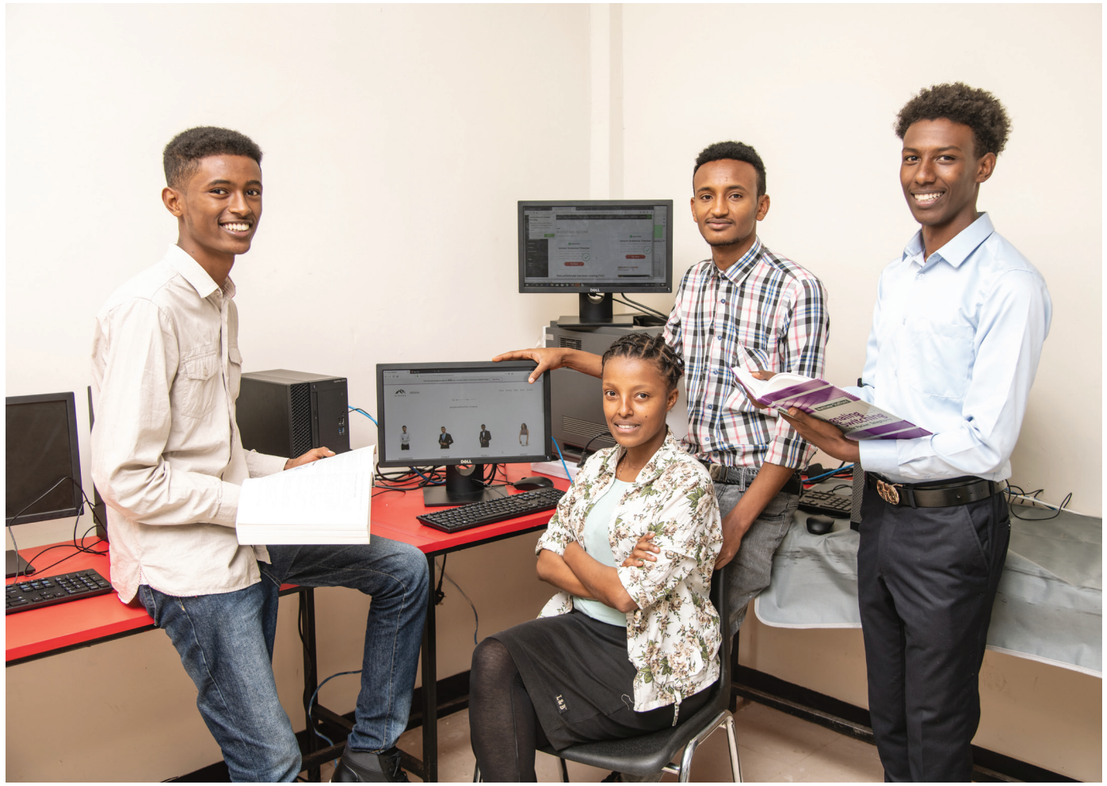
하일레셀라시에 제왈디 교장이 얼굴에 만연히 퍼진 미소 가득,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에티오피아 내 직업 기술 교육 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TVET) 학교는 수천 개나 됩니다. 아디스아바바에만도 300여 곳이나 있죠. 하지만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같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독보적입니다."

과장도, 오만도 아니다. 이 학교의 전공 분야는 전기 · 전자반(ECM), 가전수리반(HOS) 그리고 정보통신반(ICT) 세 가지로 나뉘는데, 2019년 현재 185명의 졸업생 누적 취업률이 100%에 달한다. 이는 LG전자의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 때문이다. 4년제 우수 대학교에 입학 가능한 수준의 성적으로 이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무상으로 LG전자의 최신 핵심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LG전자가 제공하는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을 받게 된다.

LG 서비스 명장들로부터 듣는 기술 특강도 있다. 이렇게 3년간 실습 80%, 이론 20%의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즈음이면, 실무에 능한 전





자 및 가전 수리와 IT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인 COC(Certified of Competence)의 합격률이 96.9%나 되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아디스아바바 내 타 직업훈련학교의 평균 COC 합격률이 60%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준차를 실감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 성과가 이렇게 우수한 이유에 대해 교장은 몇 가지 이유를 덧붙였다. 우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 받고 대충 시간만 보내다 졸업하게 놔두지 않는다고 한다. 전공과목을 명확히 이해시켜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행여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이 있으면,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도 타 학교와 차별화를 두는 부분. 두바이나 다른 해외 취업의 기회를 노려서다. LG-KOICA 직업훈련원은 학생들의 성적에만 신경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매사 성실한 태도를 갖추게 하고 생활 전반에 자신감을 북돋아 주며 사회에 나가 리더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한다.

"졸업생들은 다양한 회사로 취직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사 후 오히려 학교에서 배운 신기술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기존의 기술자보다 더 나은 수리 기능을 선보이기 일쑤니까요."

에티오피아 경제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창업지원센터

근래 몇 년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 에티오피아. 하지만 인구의 70% 이상이 30대 미만이라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경제 · 기술력을 갖추며 성장해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농촌 중심 국가입니다. 하지만 산업,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반을 다지면 정말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LG의 기업 마인드를 코이카에 접목시켜 기업에 필요한 인재 선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가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윈윈 전략인 것이죠. 현재까지 성과가 매우 좋아, 에티오피아 내 다른 직업훈련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롤모델 삼아 견학도 자주 옵니다."

김동호 코이카 에티오피아 사무소장의 말이다.

이러한 발전에 발맞춰 지난해 11월, LG-KOICA 직업훈련원은 LG 소셜캠퍼스 창업지원 인큐베이션 센터를 개설했다. 창업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업가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수 있게 마련된 장소. 인큐베이션 센터는 이들에게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실무 교육을 하며, 전문가 혹은 선배 등을 통한 일대일 멘토링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현재 인큐베이션 센터는 세 개의 그룹이 짜여 있고 그룹당 졸업 예정자 4명씩, 총 12명이 불철주야 미래를 향해 노력 중이다. 그중 졸업생인 알렘쯔하이 카히사이 씨는 자신이 발명한 제빵 기계의 특허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만든 기계는 디지털화되어 사용하기 쉽고 생활에 큰 편리를 가져다준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예전 같으면 30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전통 빵 만드는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켰다. 최대 장점은 집 밖에서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 집에 있는 쿠커를 귀가 전 미리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정말 많아요. 제 전공은 가전 수리였는데 전기 · 전자반과 정보통신반에서 기본 기술과 지식도 습득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었죠. 미래에는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 명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졸업생 알렘쯔하이 씨처럼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창업-생존-성장-성공의 경로를 밟아 나가는 인재들이 넘쳐나면, 이는 결국 에티오피아의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키워 새로운 혁신 기업을 창출할 수 있기를. 나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에티오피아에서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의 탄생도 꿈꿔 볼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KOICA-LG 및 월드투게더(World together) 3자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향해 홈런 볼을 날린
에티오피아 최초 야구단 HOPE

아디스아바바 LG-KOICA 희망 여성 야구단

글 서혜원 **사진** 한상무





벌써 6시간째. 아디스아바바의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잔디밭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던지고, 치고, 달리기를 반복 중인 열다섯 명의 소녀들이 있다. 점심 때가 훌쩍 지났는데도 그들은 에티오피아 산양 왈리아 마냥 폴짝폴짝 힘차게 잘도 뛴다. 땅에 슬라이딩은 또 얼마나 자주 했는지, 밝은 비둘기색이던 유니폼은 어느새 테라코타색으로 군데군데 얼룩졌다.

여성이 야외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즐긴다는 건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그렇다. 더군다나 딱딱한 공을 던지고 무기 같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뛰는, 사내들이 하기에도 꽤나 거칠 법한 운동을 여성이 한다는 건 정말이지 생경하다.

매주 일요일, 에티오피아 한인 야구팀과 친선 경기라도 할라치면, 이를 구경하려는 현지인들이 몰려들어 운동장을 에워싸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야구 불모지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맨 처음으로 야구를 하고 또 전파하려 노력 중인 선구자들답게, 패기가 넘친다.



PART 1

김윤호 감독의

'HOPE Girls'

"제가 LG전자 에티오피아 지사장으로 부임해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 야구단을 창단한 초창기 때만 해도, 야구공에 맞아 겁을 집어먹고 울음보를 터트리던 녀석들이었는데… 이제 제법 야구 선수로서 모양새가 갖춰졌네요. 제가 3년 치 주말을 모두 반납해가며 훈련시킨 보람이 있습니다. 행여 팔불출 소리라도 들을까 말을 아끼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일반 여학생들과는 달라요. 선수 중 11명이 졸업생이고 모두들 직장을 다니는지라 가끔 찾아가 일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상사들이 칭찬 일색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타 직원들에 비해 정신력과 태도가 월등하다고 말이죠. 사실 놀랍지는 않았어요. 괴롭고 고된 훈련을 참고 견뎌낸 장본인들이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믿습니다. 강한 체력, 정신력 그리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기에,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걸요."





PART 3

미스라치 세무(Misrach Semu)의

'Girls Can Do Anything!'

"그거 아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야구 역사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은 남성이 아닌 저희 여성이라는 걸요. 여성 야구단의 발족은 나라를 들썩일 만큼 제법 놀라운 행보였습니다. 때문에 저희 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야구라는 새 스포츠를 계속해서 알리고 전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야구를 합니다. 제 포지션은 투수예요. 그런데 김윤호 감독님께서 종종 '투수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저는 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 주장이기도 해요. 항상 모두를 서포트하고,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가끔 책임감에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야구는 가능한 오래 할 겁니다. 저에게 야구는 단순히 하나의 운동 종목이 아니니까요. 야구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는걸요. 제 정신력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저는 회사 내 부서에 오직 한 명인 여직원인데, 거친 남자들과 부딪혀가며 일할 때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뒤처지는 일도 없고요. 그런 자존감, 자신감, 정신력. 모두 야구로부터 배웠답니다."



PART 2

마리마 아메드 이맘(Merima Ahmed Yimam)의

'Never Stop, Short Stop!'

"전 팀원 중 키도 가장 작고 말랐지만, 모든 팀플레이의 상징인 유격수(short stop)예요. 야구를 왜 하냐고요? 세상에 야구보다 더 재밌는 건 없으니까요! 신기한 건, 하면 할수록 그 재미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얻는 것도 많고요. 야구를 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저는 많은 걸 습득했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에 대한 제 관념은 180도 변화했죠. 1초 안, 혹은 1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야구를 하며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큰 변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 경기 중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한 6개월 고생했죠. 잦은 부상에,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고역이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도 야구와 병행할 자신이 없어 후일로 미뤄둔 상태지만… 단 한 시도 야구를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PART 4

예시에 게트넷 (Yesiyte Getnet)의

'Nothing can stop me!'

"저는 야구를 사랑해요. 야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다친다 해도 겁나지 않아요. 한번은 경기 중 플라이 볼이 왔는데 공에만 집중하고 서로를 못 봐, 캐처와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상대 선수가 헬멧을 쓰고 있었던지라, 제 이마가 많이 찢어졌죠. 갑자기 '꽝!' 하고 피가 많이 났던 것만 기억나고 그 후 기절해서 다른 건 몰라요. 감독님이 저를 둘러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보니 이마 봉합 수술은 이미 끝났고, 전 그저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다 보니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제가 야구를 그만두지 않으리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결국 제 설득에 못 이기는 척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죠."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 미술을 가르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보라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

글 서혜원 **사진** 한상무





색색의 크레파스, 물감, 도화지, 색종이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이것저것 만들던 우리의 미술 시간.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달랐다. 실기 없이 글로만 배우는 미술 수업. 그것이 공립학교 미술 교육의 실상이었다.

한데 아디스아바바 히브렛피레초등학교의 환경은 달랐다. 아이들의 예술 작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교실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물감 냄새가 확 풍겼다. 아이들이 '게임'이라 표현할 만큼 재미있는 이보라 단원의 미술 수업은 창의력, 사고력의 발달과 더불어 미술을 통한 인격 형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진화하는 중이다.

Q. 에티오피아 히브렛피레 초등학교의 미술 교사로 파견된 과정을 알려주세요.

한국의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막연히 해외 미술 교육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코이카 봉사단에 대한 내용이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어 고민도 않고 지원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2018년 11월, 코이카 봉사단 126기로 에티오피아에 오게 됐습니다.

Q. 미술 수업은 아무래도 도구나 커리큘럼 등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에티오피아에 오기 전, 현지에 한지나 먹 같은 한국 미술 재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또 학기 초반에는 학생들과 제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아무래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언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퍼포먼스 미술 수업이라든지, 종이접기를 통한 게임 같은 것이었죠.

Q. 히브렛피레 초등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예카 지역에 6.25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한국 마을'에 열악한 학교가 있었는데 2005년 코이카의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히브렛피레 초등학교를 다시 건립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선택이었죠. 덕분에 학교 시설이 아디스아바바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좋아요. 약 15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1,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규반에서, 또 300명이 넘는 수가 야간반에서 교육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대부분은 6.25 참전용사 후손들입니다.

Q. 에티오피아의 미술 교육 환경은 좋은 편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해요. 에티오피아 미술 수업 평가를 해 보니, 실기는 아예 제외된 이론 위주의 커리큘럼만 존재했습니다. 듣고 쓰며 외우는, 책 속 지식만 가득한 미술 수업이 재미있을 리가 있나요? 이런 상황 속에 실기 위주의 방과 후 미술 교실이 열린다는 공지를 하니, 아이들의 호응은 엄청났

고 제 수업을 들으려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Q. 이보라 단원이 진행하는 방과 후 미술 교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히브렛피레 초등학교의 미술 수업은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정규과정의 미술 수업은 이론만으로 진행되고, 제가 맡은 방과 후 미술 수업은 실기 위주입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 팀당 10~15명의 학생으로 구성했고, 팀당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합니다. 이론을 아예 안 가르칠 수는 없는데, 초반에는 언어 문제로 인해 진행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퍼포먼스 수업만 했죠. 풍선을 불어 던지고, 분필로 그림을 그려 게임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미술 교육은 무작정 종이와 물감을 주고 "그림 그려!"라고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의 창의적 생각과 마음을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미술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은 필수죠. 결국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다행히 제 암하라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 "이건 뭐야?", "뭘 표현하려 이렇게 그렸니?" 같은 질문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여요.

Q. 실기 위주의 수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며,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으신가요?

지난주에 했던 수업을 예로 들게요. 커다란 도화지에 학생 한 명을 뉘어 놓고 그 애의 몸을 본뜬 다음, 얼굴이나 옷 같은 것





은 조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창작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도형을 다양한 크기로 잘라 아이들에게 연상되는 것을 그리라고도 했지요. 그러자 아이들은 삼각형을 모자나 지붕으로, 동그라미는 얼굴이나 공 등으로 변형해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떤 한 학생이 그림을 잘 그렸다 싶으면 그걸 따라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런데 그때 만약 혼자서 다른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 아이가 있으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일부러 칭찬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서서히 아이들의 독창성이 길러지게 된답니다. 인체 그림, 뼛조각, 해골 등을 본떠 그리는 수업도 했어요. 가능한 다양한 방면의 예술에 노출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아이들이 특별히 흥미를 보이거나 참여도가 높았던 부분이 있다면요?

솔직히 모든 수업에 열성을 보입니다. 실기 수업 자체가 없다 보니, 아이들 흥미가 최대치랍니다. 따라서 수업 태도가 나쁜 경우는 보기 힘들 정도예요. 물론 그래도 아이들이다 보니 예의범절이 부족하거나 수업에 집중 못 해 낙오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처음에 암하라어가 익숙하지 않을 무렵에는 반장을 선출해 통제하도록 했더니 효과가 꽤 좋았어요.

Q. 학생들을 가르치며 가장 보람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또 가장 힘들었던 때는요?

다른 선진국의 아이들과 달리, 에티오피아에는 그 흔한 컴퓨터 게임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고 붙이는 예술 활동을 게임하며 노는 것으로 여겨 너무 재미있어 하고 즐깁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같이 보람을 느껴요. 정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겠다고 함박웃음을 하고 뛰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사명감이 더욱 증대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답니다.

힘들었던 부분은 학기 초, 아이들이 제 눈을 속이며 도둑질했던 일입니다. 눈물이 날 만큼 실망감이 컸어요. 하지만 당시 아이들은 교실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게 크게 나쁜 일이라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물건을 훔치는 건 정말 나빠. 또 이러면 다음 수업은 없을 거야."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심각성을 깨닫더라고요.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지우개 한 조각도 제게 가져다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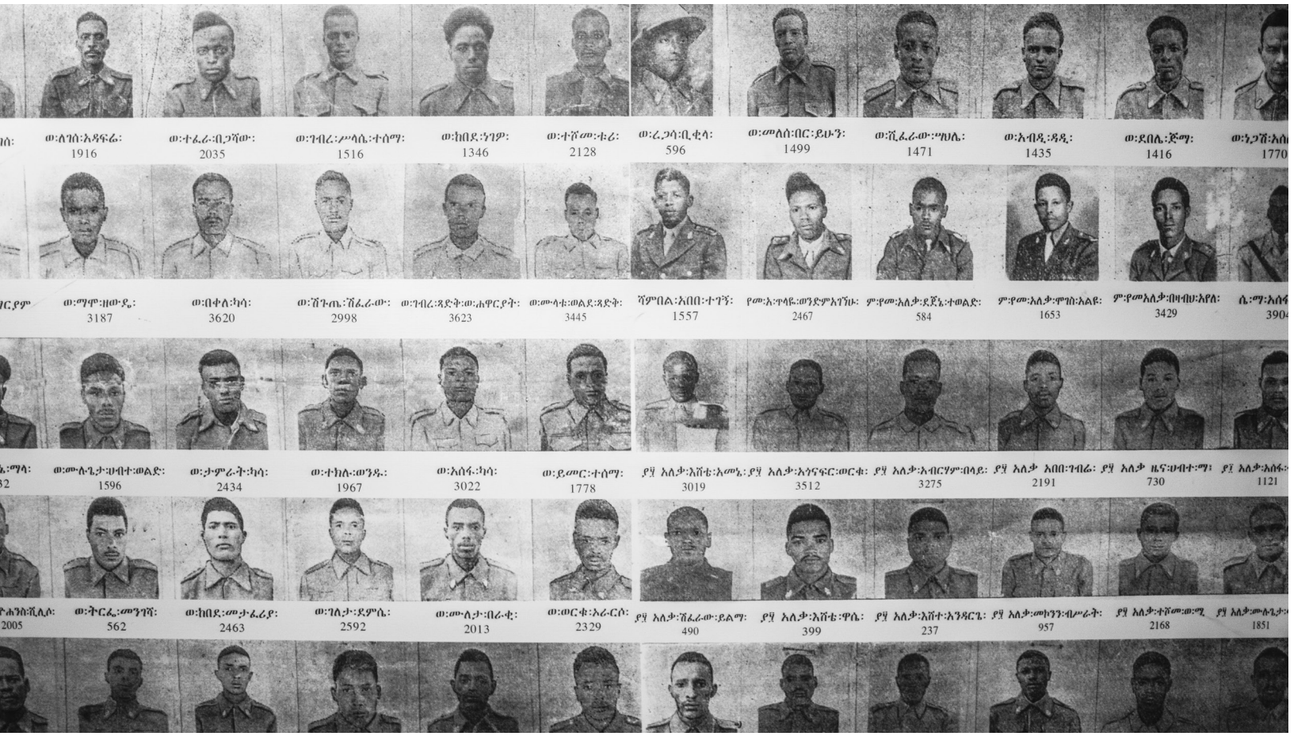
Q. 에티오피아에서 미술 교육 봉사를 한 뒤 개인적으로 달라졌거나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요?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는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해져서 어디든 편안히 다닌답니다. 또 이곳에서 동양인 여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배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단원님의 추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에티오피아는 영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8학년 국가시험의 경우도 국어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영어로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돼 영어 수업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영어와 미술을 결합한 통합 교육을 시도해 보려 합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고민 중이고요. 한 가지 더, 원래 1년이던 계약 기간이 끝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에티오피아에 더 오래 남고 싶어졌네요.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6,037명

가장 치열했던 6.25 고지전에 서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강원도 최전방에 섰던 검은 피부의 아프리카 전사들을 아는가? 6.25 전쟁이 발발해 한반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에티오피아는 9,164km나 떨어진 지구 반대편으로 보병 부대를 파병한 유일무이의 아프리카 국가였다. 현재 한국인들이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낸 에티오피아 영웅들이 있어 가능했다.

글 서혜원 사진 한상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세계 평화를 향한 열망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난 전쟁터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기대 따위는 없었기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머나먼 타국의 전쟁터로 향하며 죽음을 결심했던 아프리카 청년, 멜레세 테사마. 1952년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 장장 21일간의 항해를 했을 때, 그의 나이는 스물두 살에 불과했다. 그가 이렇게 자진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배경에는 에티오피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 평화 추구에 대한 간곡함이 깃들어 있었다.

유럽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멀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던 '아프리카 쟁탈전'에서 에티오피아는 홀로 독립을 지켜낸 유일한 국가였다. 그럼에도 에티오피아 국민과 국토는 참담한 피해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탈리아의 두 번째 침공이 있던 1936년,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파병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모



두에게 외면당하는 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그 후 처음으로 발생한 첫 전쟁인 6.25에 셀라시에 황제는 자신의 근위대를 파병했다. 황제가 황실근위대에 친히 지어준 이름은 강뉴. 에티오피아어로 '적을 초전에 격파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맹위를 떨쳤다.

파병 전 황제는 출정식에서 "가라!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라 명했다. 이 말은 곧 강뉴부대의 좌우명이 되었고, 충실한 신하의 도리를 다하리라 마음이라도 먹은 듯 한마음 한뜻으로 황명을 따랐다.

에티오피아는 전승하고 돌아온 용사들을 자랑스럽게 맞았다.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뿐 아니라 유엔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으로부터도 훈장을 받은 그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에티오피아에 공산 독재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공산주의와 싸운 대가로 참전용사들의 지위는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반역자로 곤두박질쳤고, 후손들까지도 핍박을 받으며 쉬이 벗어나기 힘든 굴레를 썼다. 6.25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들은, 또다시 삶의 전쟁 속에 내던져진 것이다.

누가 노병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코이카는 참전 용사 후손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 중이다. 먼저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학생 선발 시 후손들에게 우선 선발의 기회를 주고, 이들이 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무상으로 컴퓨터 기초 교육도 하며 이들이 자신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돕는다. 코이카의 유관 단체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에서도 태권도, 미술, 음악 수업 등을 마련해 후손들 교육에 힘쓴다.

94세의 참전용사 테페라 테케텔은 옅은 미소를 띠며 심경을 전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조국입니다. 한국인들이 먼 에티오피아까지 찾아와 참전용사 협회를 세워주고 저희 후손들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니,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멜레세 테사마도 덧붙였다. "저는 한국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또 하나는 급성장을 한 현대의 모습.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된 한국을 보면 69년 전 우리가 흘렸던 피가 무의미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어려움이 많다 보니, 한국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괜스레 미안해지지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훗날 경제가 안정돼 이에 보답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혈맹의 나라 에티오피아와 살뜰한 우정을 나누며 아름다운 합주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후세에 이르러서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보은의 길이지 않을까?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에티오피아 국립 박물관

루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당신

지금으로부터 320만 년 전, 아프리카 동쪽 에티오피아의 아와시 계곡에 한 무명의 여인이 살았다.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며 나무 타기도 즐기던 어느 날, 그녀는 안타깝게도 나무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러다 억겁의 세월을 지나 1974년 현 인류에게 발견된 이래 '최초의 인류, 루시'라 불리며 모두가 칭송하는 유명 유인원이 되었다. 루시가 잠들어 있는 인류의 기원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그곳에서라면 인류 진화의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 서혜원 **사진** 한상무



에티오피아 국립 박물관의 헤로인, 루시

솔직히 말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 도시는 아니다. 날씨 맑은 날, 시내를 돌아다녀도 외국인 관광객 한 명 마주치기가 쉽지 않을 정도니까. 하지만 이곳, 에티오피아 국립 박물관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정문 근처는 각국에서 온 대형 관광버스, 미니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미 진입로의 정원에서부터 사진을 찍고 영상 촬영을 하느라 분주하다. 모두 루시를 보러 온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루시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1936년 국립도서관 일부였다가 독립한 후, 1970년대 후반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인 루시 뼈 화석은 지하 1층에 누워 있다. 초입에 들어서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다른 유인원들의 뼈 화석 모형들을 차례대로 보게 된다. 안쪽 중앙 부분에 이르면, 드디어 루시가 보인다. 성인이지만 키가 1m 6cm가량으로 체구가 어린아이처럼 왜소한 그녀의 뼈 화석은 투명한 관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을 마주한다는 감동도 잠시, 루시가 레플리카 즉 모형임을 깨닫는 순간의 실망은 감추기가 힘들다. 물론 실제 루시 뼈 화석이 박물관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보관 문제와 그 중요성을 고려해 국립박물관의 고인류학 연구실 내, 특별 설계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을 뿐. 당연히 일반인들의 열람은 불가하다. 연구원이 아닌 이가 고귀한 루시를 직접 알현하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한 건 아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유일할 것이다.

고인류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 루시. 그녀는 정확히 누구이며, 인류에게 있어 그녀의 존재는 왜 이토록 중요한가?

AL 288-1, 든끄네쉬 혹은 루시의 발견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한 일요일 아침, 정확히는 1974년 11월 24일이었다.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삼각지역 아와시 계곡에 있는 하다르 마을 근처 강가에서 미국의 고인류학자 도널드 요한슨은 유인원의 팔로 보이는 뼈 화석을 발굴했다. 그 후로도 두개골, 척추, 갈비뼈 등 인체의 40%에 달하는 뼈를 찾았는데, 한 장소에서 이렇게 온전한 신체의 화석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 고인류학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탐사팀은 희열에 들떠 파티를 열었다. 그때 연구원 한 명이 비틀스의 곡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를 연이어 틀자, 누군가 뼈 화석을 루시라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 그녀. 본명은 AL 288-1, 또는 암하라어로 '당신은 놀라워요'라는 뜻의 '든끄네쉬'였는데 말이다. 루시는 그렇게 루시가 되었다.

인간은 직립보행하는 유일한 포유동물이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계 조상은 누구라 알려져 있을까? 바로 루시 종(種)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러 종이 존재하지만 아파렌시스는 루시 화석을 통해 두 다리로 걸었다는 걸 명백히 증명하기에, '인류의 조상' 또는 '최초의 인류'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단 채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표본으로 추앙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또다시 영화 〈식스센스〉 급의 반전이 고인류학계에 초래됐다.

루시가 인류의 직계 조상이 아닐 수도 있다니요!

2019년 8월 28일, 에티오피안 고인류학자이자 미국 클리브랜드 자연사박물관 큐레이터인 요하네스 하일레-셀라시에 박사가 그의 '일생일대의 발견'을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내용인 즉, 루시에게 붙여진 '최초'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주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다. 연구진은 2018년 380만 년 된 MRD라는 얼굴 뼈 화석을 발굴했는데, 이는 루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바로 이전 종으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로 밝혀졌다. 한편 연구진은 380만 년 전 화석인 MRD를 '벨로델리 프론탈'로 알려진 390만 년 전 화석과 비교했고 이를 통해 벨로델리 프론탈이 아파렌시스 즉 루시와 같은 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MRD의 발견으로 아나멘시스와 아파렌시스가 약 10만 년 정도 공존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루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들이 최초의 인류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제 고인류학 학자들은 루시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모든 종을 재조사하고 최초의 인류와 가장 비슷한 종이 무엇인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요하네스 하일레-셀라시에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떤 종이 인류의 직계 조상이냐고요? 글쎄요, 이제 모든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재밌는 퍼즐 게임과도 같은 인류학. 이번 발표로 인류 조상의 계보가 뒤흔들렸으나, 루시는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화석이다. 비틀스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늘에 있는 루시'라 했다. 하지만 실제 루시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으니 지금이라도 만나러 가보기를.

에티오피아 커피 세레모니

그 경건하고도 매혹적인 의식에 대하여

따끈하고 검은 액체를 한 모금 넘기면, 금세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감기던 눈이 번쩍하고 뜨이며 불끈 에너지가 솟는! 마법의 음료, 커피. 요즘은 세계 유명 커피 전문점과 스페셜티 커피만 판매하는 카페, 생두를 바로 볶아주는 로스터리 등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제법 흔해졌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커피의 발생지인 에티오피아 분나(Bunna, 커피를 뜻하는 암하라어)의 맛과 향에 비할 수는 없다. 정성스레 직접 볶고 빻아 만든 커피 한 잔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 기원, 존경 등 모든 긍정적인 기운마저 서렸으니.

글 서혜원 **사진** 한상무



커피 아니고 분나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커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에티오피아 커피, 그리고 나머지들. 물론 커피는 기호 식품이니, 맛의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겠다. 그래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커피를 잘 안다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 커피'는 게이샤(커피의 품종 이름)나 예가체프 같은 고급 아라비카 품종 커피가 아니라, 분나를 뜻한다. 에티오피아 전통 방식으로 볶고 갈아서 끓여낸, 걸쭉한 그 커피 말이다. 분나는 그 어느 커피에서도 본 적, 맛본 적, 맡아본 적 없는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혀끝에 닿자마자 자연스러운 단맛, 톡 쏘지 않고 은은한 신맛, 희미한 짠맛, 견과류의 고소한 맛 등 딱히 꼬집기 힘든 온갖 풍미가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한꺼번에 입안을 감돌아친다. 잔을 비우고 난 후에도 텁텁하지 않은 뒷맛에 매료되고 만다. 정말, 아주, 맛있다.

최소 삼시 석 잔, 커피의 왕국

"커피 마셨니?", "커피 마실래?", "커피 줄까?"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다. 흡사 우리나라의 "밥은 먹고 다니냐?" 수준이다.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이자 배려이고, 친근함의 표현이며 마음 씀이다.



커피의 발생에 대한 에티오피아 전설은 잘 알려져 있다. 6~7세기경, 목동 칼디가 키우던 염소들이 처음 보는 붉은 열매를 먹었는데, 밤이 늦어도 잠은 안 자고 춤추듯 뛰어다니며 힘이 넘쳤다. 이를 본 칼디도 그 열매를 집에 가져와 물에 끓여 마셔보니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신기한 식물을 발견했다는 기쁨에 이슬람 수도사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은 '악마의 열매'라 여기며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불에 타던 이 열매로부터 더 향기롭고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커피의 탄생이다. 제법 그럴싸한 설화 속 칼디가 실제 존재했는지는 밝혀낼 방법이 없다. 단지 에티오피아는 실제로 커피가 쑥쑥 자라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 즉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에 사시사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후라는 점은 확실하다. 더욱 분명한 건, 에티오피아인들이 커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들만의 독보적 문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 커피 생산지 중, 커피를 마시는 고유한 문화를 지닌 유일무이한 국가다. 이는 분나 마프라트 즉, '커피 세리머니'라 부른다. 생두를 씻고 볶는 것에서 시작해, 커피를 다 마시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치 종교 의식처럼 경건히 행하는 것이다. 하루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주로 한다. 세리머니 한 번에 기본 석 잔 정도 마시는 게 관례이므로, 만약 그날 모임이 두 군데에서 있다면 적어도 커피를 여섯 잔은 마시게 되는 셈. 분나 마프라트는 집에서 가족끼리 도란도란 시간을 보낼 때도 하지만, 길을 가다가 혹은 상점에 들어가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커피 예식

커피 세리머니를 하려면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세리머니 할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음에 환영과 행운의 의미로 케트마라 불리는 나뭇잎을 깔고, 그 위에 레케봇이라는 작고 나지막한 상을 차린다. 상 위에는 손님 수대로 스니라 불리는 작은 커피 잔을 올려주면 준비 끝. 오직 여성만이 커피 세리머니를 주관할 수 있다.

커피 세리머니를 하면 석 잔은 기본으로 마시는 게 예의다. 첫 잔은 '아볼', 두 번째는 '타우나' 그리고 마지막 잔은 '버러카'라 한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이어질까 걱정이겠지만 첫 번째 잔 이후 두, 세 번째는 기존의 커피에 물을 더 부어 마시는 거라 맛이 점점 희석되고 약해진다. 세리머니 한 번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한 시간 반에서 길게는 두 시간. 중간에 대화라도 한다 치면 시간은 더 늘어난다. 만약 에티오피아 지인이 "우리 커피나 한 잔 할까(Nu Bunna Tetu)?"라 물으면 재빨리 마시고 헤어질 거라는 생각은 접는 것이 좋다.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잘 알고 또 오랫동안 마셔온 에티오피아인들. 그들에게 커피란 민족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또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일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오랜 속담이 이를 한 마디로 평한다. "분나 다보 나우(Buna dabo naw)." 직역하면 "커피는 우리의 빵이다."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커피는 양식이 될 만큼 중요하게 치부되는 황금의 열매인 것이다.





커다란 접시 한가득 넘치는 정

에티오피아 전통 음식 '인제라'

"엄마! 저 사람들 팬케이크를 숟가락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딸 리사가 인제라를 처음 본 후 묘사한 말이다. 리사의 말은 하나 틀림이 없다. 인제라를 먹을 때 포크, 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도구는 일절 필요하지 않으니까. 작은 구멍이 송송 난 따끈한 인제라를 뜯어 '와트'라 통칭해 부르는 매콤한 에티오피아식 카레 소스를 뜨거나, 구운 고기인 '틴스'를 싸서 먹으면 끝. 마지막에는 접시처럼 맨 아래 깔려 각종 소스에 폭 적셔져 있던 것까지 다 먹는다. 진정 인제라는 음식이자 곧 식기인 것이다.

글 서혜원 사진 한상무

슈퍼 곡물 테프로 만든 건강식

인제라의 주원료는 유구한 3천 년의 에티오피아 역사와 함께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고대 곡물, '테프'다. 점처럼 작은 이 토착 곡물의 건강상 이익은 꽤나 방대하다. 먼저 라이신을 포함해,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글루텐 프리 곡물이다. 칼륨과 칼슘 함유량도 높아 뼈 건강 증진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데도 탁월하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철분 함량이 월등히 높아 빈혈이 있거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더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가장 귀가 솔깃해지는 부분은,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이 쉽게 오고 칼로리도 매우 낮아 다이어트 식단으로 안성맞춤이라는 것. 여러모로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슈퍼 푸드로 각광받게 된 테프. 그 인기에 힘입어 에티오피아 농부들은 최근 수출 급증으로 인한 수요를 간신히 따라잡는 중이라 한다.
전통적인 인제라는 테프만 100%로 사용하지만, 몸값이 비싸진 테프 대신 밀, 보리, 옥수수 등을 테프 가루와 함께 섞기도 한다. 테프는 종류에 따라 흰색, 갈색, 적색 등 여러 가지의 색을 띠어 인제라의 색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 가면 에티오피아 법을 따르라

제아무리 팬케이크를 많이 만들어본 고수라 할지라도, 인제라 만들기에 쉬이 도전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얼핏 보면 부침개 부치듯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녹아 있다. 손이 많이 가고 준비 시간도 짧지 않아 근래에는 가게에서 구입하는 가정이 늘고 있을 정도다.
인제라를 먹을 때 알아 두면 좋을 에티켓이 있다. 첫 번째, 반드시 깨끗이 씻은 오른손을 사용해 먹을 것. 왼손은 청결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자. 두 번째, 인제라를 싸서 친구나 가족에게 먹여주는 관습, '구르샤'다. 구르샤는 암하라어로 '입안 한가득'이라는 뜻인데, 보너스, 뇌물, 팁이라는 뜻도 있다. 에티오피안 지인이 손으로 음식을 싸서 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받아먹은 후, 다른 사람에게 구르샤를 해줘도 좋다.
에티오피아에 "같은 접시의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태초부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최소 두 명 이상의 가족 및 친지, 지인들과 함께 다정히 인제라를 나눠 먹으며 정과 두터운 신의를 다져온 게 아닐까? 음식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미덕을 거의 매끼마다 행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 마음의 온도가 얼마나 따뜻한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더 나은 코이카로의 변화를 주도하다

코이카 국민소통센터

2016년 10월 TF팀으로 출발하여, 국민소통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곳은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을 연결하여 더 나은 코이카의 미래를 앞당기는 곳이다.

글 이경희 사진 안호성

신설 부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코이카의 국민소통센터 역시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다. 국민소통센터가 하는 일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며 복잡하다.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며 쌍방향 소통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함께 사업을 해오던 고객과의 파트너십이 한층 더 중요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다.

신생부서로서 '소통과 혁신'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과 시도를 거듭하는 국민소통센터. 이들의 목표는 대외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으며 수원국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코이카의 성장을 보다 진정성 있게 이끌어 내는 것이다.

모든 직원들이 똘똘 뭉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소통센터. 이들이 있기에 코이카의 미래는 좀 더 밝고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선후배 톡톡 Talk Talk!

모두와 소통하기 위해 언제나 양쪽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국민소통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진리 직원 이화연 과장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장 2011년에 입사했고 이곳 부서가 생기면서 합류해 센터에서 근무한 지 3년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이카의 고객만족(이하 CS) 업무, 고객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재화하는 평가, 각 부서와 사무소 간의 CS 활동, 사업 서비스의 품질을 상향화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직원 2019년 3월에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국민소통센터에 첫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어요. 코이카 직원들이 비즈니스 매너, 고객대응 마인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CS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Q 국민소통센터의 역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과장 과거에는 코이카가 유일무이한 개발협력 전담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발협력사업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요구되고, 고객 만족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궁극적으로는 코이카에게 우호적인 좋은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규고객만큼이나 예전부터 함께 사업을 해오던 고객들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더 강화된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김 직원 저희들은 부서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업무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멘토와의 대화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직원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주면서 코이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코이카 직원이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소통프로그램이고요. '참(CHARM) KOICA'는 내·외부에서 들어오는 코이카 관련 칭찬 VOC(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의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요.

Q 국민소통센터의 분위기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부서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김 직원 처음에는 CS 업무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서라고만 생각했는데 CS뿐 아니라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전사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서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인지 외부와의 협업은 물론 부서원 간 늘 대화가 많고 훈훈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 과장 다른 사업부서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탄탄하게 체계가 잡혀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서는 이제 4년차다 보니 늘 고민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힘내는 분위기가 있어요. 신생조직이 갖고 있는 특유의 활력과 에너지, 새 길을 닦아 나간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지요.

Q 국민소통센터가 생기고 난 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직원 코이카는 기획재정부 평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부서가 일조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장 코이카가 계속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외부고객들이 많이 놀라워하세요. 건의를 하면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Q 내부고객이라 할 수 있는 코이카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과장 우리 부서가 새로 생긴 뒤로 저희가 직원들에게 고객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각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이카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파트너십이 있어야 개발협력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제 4년차 되는 저희 부서에 많은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 직원 코이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 좀 더 나은 프로젝트, 사업, 업무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국민소통센터에서는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업무를 보다 넓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이카의 혁신을 선도하다

코이카 경영혁신기획팀

코이카의 출범부터 그 궤를 함께 해온 경영혁신기획팀은 직제개편에 따라 수차례 이름이 바뀌어왔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부서이다. 경영혁신을 통해 더 나은 코이카의 현재를 만들고 기획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선도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곳. 경영혁신기획팀을 만나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원상희

경영혁신기획팀은 매년 경영혁신을 위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그리고 각 부서가 그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실적을 점검해 차년도 혁신계획에 반영, 업그레이드한다. 부서 차원을 넘어서 기관에 필요한 전략들을 기획하는 업무도 빼놓을 수 없다. 경영혁신기획팀은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팀인 만큼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획조정실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기관 내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 간 업무분장 등을 조정하고 기관 내 · 외부의 창구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료들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자'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 달리고 있는 경영혁신기획팀. 그곳은 코이카의 전 부서를 누비며 땀 흘리는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다.

선후배 톡톡 Talk Talk!

코이카의 미래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경영혁신기획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채 과장 2012년에 입사, 경영혁신기획팀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지자체, 협력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업무와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지역사회 기여나 일자리 창출 방법 등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직원 2019년 입사한 신입직원으로 현재 혁신과제 이행 및 모니터링, 기관 혁신문화 조성 및 혁신 내재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 혁신에 대한 플랫폼 구축, 캠페인 시행,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채정원 과장



김수진 직원

Q 팀의 일원으로서 팀 자랑을 해주세요.

채 과장 내부적으로 팀원들 서로가 많이 지지하고 이해해줘요. 개인의 업무가 아닌 회사의 업무, 모두의 업무라는 것을 알아주다보니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있죠. 검토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등 직원 한 명 한 명의 업무가 매우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는 책임감 있는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김 직원 저희 팀장님은 신입 직원이 의사결정이나 의견을 요청드릴 때에도 꼼꼼히 봐주시고, 제가 팀장님과 다른 의견을 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릴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업무 중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채 과장 코이카의 장점이나 보유자원은 각 부서들과 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팀도 바쁘지만 다른 팀, 다른 사무소에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 요청을 드릴 때 많이 미안하고 힘듭니다. 업무 요청을 할 때는 최대한 바쁜 시기를 피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저희 팀에서 일차적으로 가공한 다음에 요청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김 직원 저는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을 드릴 때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실장님과 같은 상급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의사소통 중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다를 때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먼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고, 그래도 해결이 어려울 때는 팀 과장님들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Q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채 과장 저희는 업무 특성상 국제사회 동향, 타 공여기관의 정책과 조직 변화, 타 공공기관의 주력 사업 및 평가 대응, 상급기관의 지침 등을 공부하다 보니 가장 빨리 트렌드를 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를 내부에 내재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업부서들이 저희와 동일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 요구에 대한 수용도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든 조직원들이 동일한 가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총체적 성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내재화를 위해 저희 팀원들 모두가 많이 노력합니다.

김 직원 저는 작년에 제가 담당해서 시행했던 '2019 코이카 혁신페스티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사 공모, 직원 투표와 내부 심사를 거쳐 업무 방식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미 시행된 부분에서는 높은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방식 혁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분위기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도국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시민단체와 함께합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힘은 강력하다.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열정은 때로는 기관이나 기업이 가진 힘 이상을 발휘하고, 이들과의 협업은 상상 이상의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일찌감치 깨달은 코이카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다.

글 이경희 **사진** 원상희

시민사회협력실은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와 개발도상국 현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탄생했다. 이곳의 목표는 개도국을 위한 코이카의 다양한 사업에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코이카와 시민단체의 협력 하에 개도국의 현실을 잘 반영한 실질적인 개발협력사업으로 보다 높은 성취를 가져오는 것. 시민사회협력실 부서원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있다.



선후배 톡톡 Talk Talk!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더욱 단단한 국제개발협력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시민사회협력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장지은 전임



김경열 과장

Q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 과장 2016년 12월 입사한 이래 쭉 시민사회협력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프로그램이 정부 사업이다 보니 정부에서 분담하는 비용을 우리 시민단체가 어떻게 집행하고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정산해야 해요.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긴 하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장 전임 입사한 지 3년차 직원입니다. 원래 민관협력사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민사회협력실에 지원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협력 NGO 대상 업무 중에서 농림수산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개발협력 NGO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과 역량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시민사회협력실의 주요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김 과장 먼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 파트너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등교육, 교육, 농림수산, 보건, 다분야, 사회적연대경제 이렇게 총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적연대경제 분야 역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비영리지만 수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우리 사업의 이해관계자 혹은 수행주체로 포괄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Q 수익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과장 협력국 정부 등을 통해 개도국 사업 현장의 재정 투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개발협력사업의 지속성과 관련된 주요 고민입니다.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수익을 이해관계자 내부에서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등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사업 내용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농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에서 판매해 발생한 수익으로 농기구를 구입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다른 재배 품종을 시도해 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Q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부서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김 과장 우리 실은 서로가 공동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 심사의 경우 분야별로 심사를 달리하고 일정도 다르지만 공모 절차가 흘러가는 2~3개월 동안은 실의 주된 업무가 되다 보니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도 전체 공유를 하고 점검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동료들이 그런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요. 이런 것들이 협력이 잘되고 나중에 갈등이나 오해를 없애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전임 저희 실은 분위기 자체가 밝고 직원들끼리의 분위기도 매우 끈끈하고 정겹습니다. 코이카 내에서 손에 꼽히게 좋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자부해요. 신입시절부터 지금까지 선배님들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이제는 제가 후배님들에게 그만큼 또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각오를 다지고 계신지요.

김 과장 · 장 전임 지난 시간 동안 저희 부서는 변화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3년 동안 조직 차원의 리더십도, 부서 자체도 수평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온 거죠. 올해에는 그런 변화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살펴보고 안정화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시도한 것들이 어떤 효과가 났는지 잘 살피고 더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에 후진 따위 없는 직진남,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코이카 서아프리카실 이세진 직원 & 배우자 왕고 웬드라타 쟝보스코 씨

**햇살 가득한 한가로운 주말 아침, 핼러윈을 앞둔 거리에는 익살스러운 얼굴의 호박 유령들이 마녀 모자를 쓴 채 사람들을 반기고 있었다.
이윽고 저 멀리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조잘조잘 수다를 떨며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 만나볼 두 사람, 세진과 보스코다.**

글 남지연 사진 한상무

코이카가 맺어준 운명 같은 인연

그야말로 '신혼'이다. 코이카 서아프리카실 이세진 직원과 그의 배우자 보스코 씨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세진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다는 '5월의 신부'가 되었다.

세진과 보스코의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이카 입사 전 코이카 영프로페셔널(청년인턴)로 활동한 세진은 NGO 단체인 국경없는 교육가회(이하 EWB)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EWB는 부르키나파소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NGO 단체인데, 당시 보스코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르키나파소로 자전거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에 EWB에서는 이를 기사로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어가 세진, 인터뷰이가 보스코였다. 서로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란 것을 까맣게 모른 채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EWB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라톤 행사를 열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세진과 보스코는 10km라는 거리를 함께 뛰고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세진은 예쁘고 똑똑했어요. 대화 내내 편안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그날 이후 용기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세진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는 보스코의 목소리에서 당시의 떨림과 설렘이 전해진다.

"대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보스코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나와 성격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보스코가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한 것이에요. 보스코는 '직진남'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앞으로
기쁠 일도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그때와 함께라면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차근차근 준비한 '함께'라는 미래

영프로페셔널을 마친 후 세진은 본격적으로 코이카 입사 준비를 시작했다. 보스코는 세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힘이 되어주었고, 이에 세진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세진은 2018년 10월 코이카에 입사했고 그로부터 두 달 뒤, 보스코는 세진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친구들과 모여서 생일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보스코가 깜짝 프러포즈를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터라 너무 놀랐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보스코 역시 그날을 가장 행복한 날로 꼽았다.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저 역시 정말 행복했어요. 세진의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많이 떨렸지만 그날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 세진의 어머니는 처음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기도, 걱정하기도 하셨다고.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의 걱정이 크셨어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할 것까지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보스코와 여러 번 만나보신 세진의 부모님은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누구보다도 결혼을 응원해주셨다고 한다. 보스코의 부모님 역시도 그랬다.

"제가 EWB에서 근무할 때, 3주 정도 부르키나파소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EWB 사무소랑 보스코 부모님 댁이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보스코 없이 저 혼자 갔지만 부르키나파소가 평소에 쉽게 방문하기에는 힘든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스코 가족들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세진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부모님께 여자친구가 집으로 갈 거라고 연락을 드렸고, 세진은 몰랐겠지만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먼 나라 한국에서 부르키나파소를 찾아온 세진을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살갑게 대해주셨다. 당시 세진은 몰랐지만 아마 그때 보스코의 부모님은 훗날 가족이 될 세진을 마음에 쏙 담아두시지 않았을까.





보스코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즐겁고 행복한 일이 훨씬 많았지만 어려운 점도 분명 있었다. 보스코는 대번에 '결혼식'을 꼽았다.

"세진과 만나면서 문화차이를 느낀다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결혼식을 하면서 정말 크게 느꼈어요. 한국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예를 들면 스드메…)부터 결혼식까지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결혼식은 한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스코의 입에서 '스드메'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큰 행사를 두고 당시 두 사람의 의견 차가 컸는지 세진 역시 그때를 회상하며 고개를 저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결혼식을 하루 종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한 시간 정도죠. 보스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인 게 분명하지만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의견차가 있었지만 잘 조율해 모두의 축복 속에 예쁘게 결혼식을 올렸고, 올해 부르키나파소로 가서 한 번 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두 사람. 세진의 입사 동기들 중 첫 번째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덕에 동기들의 축하 역시 한 몸에 받았다며 동기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렇다면 국제 커플은 어떤 언어로 대화할까? 두 사람이 대화하기에 가장 편한 언어는 영어이지만, 보스코의 사업 파트너가 대부분 한국인이기 때문에 보스코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평소에는 한국어로 대화한다고. 대화의 60~70%는 한국어, 20%는 영어, 10%는 불어를 사용한다. 덕분에 한국에 온 지 5년이 된 보스코의 한국어 실력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보스코가 업무 전화를 할 때면 너무나도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해 깜짝 놀란다는 세진. 다만 두 사람이 싸울 때면 보스코의 한국어가 급격히 퇴보하는 것은 미스터리라고.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던가. 얼굴만 마주 봐도 웃음이 배실배실 새어나오는 두 사람이 시종일관 내뿜는 달달한 눈빛은 두 사람의 사랑을 설명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풋풋하고 파릇한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황금빛 가을의 풍요로움을 닮는 듯 알알이 익어가고 있었다.

자연과 놀자, 지구를 지키자!

자연이 준 선물로 재미있는 장난감 만들기

최근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는 '필환경'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플라스틱 장난감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줄이고 자연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푸른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며 플라스틱 장난감만큼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환경 장난감을 소개한다.

숲 속 요정이 되어보자

나뭇잎 왕관 만들기

녹음이 짙은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할 수 있는 놀이. 어떤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준비물을 오직 숲에서 구할 수 있다. "숲 속 요정이 되어볼래?"라고 묻는 순간 아이들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한다.



How To?

재료
작은 나뭇가지, 넓은 잎사귀

나뭇잎 왕관 만들기
1 캠핑장 주변에 잎이 넓적하고 두꺼운 나뭇잎을 모은다.
2 나뭇잎을 엮을 시침핀 역할을 할 작은 나뭇가지도 찾는다. 비에 젖은 나뭇가지나 너무 얇아 쉽게 부러지는 건 사용할 수 없다.
3 잎사귀는 두 장을 서로 겹친 후 나뭇가지를 잎이 겹쳐진 면에 꽂아 넣는다.
4 다른 잎사귀들도 같은 방식으로 엮어 붙인다.
5 아이의 머리 크기에 맞춰 왕관을 만들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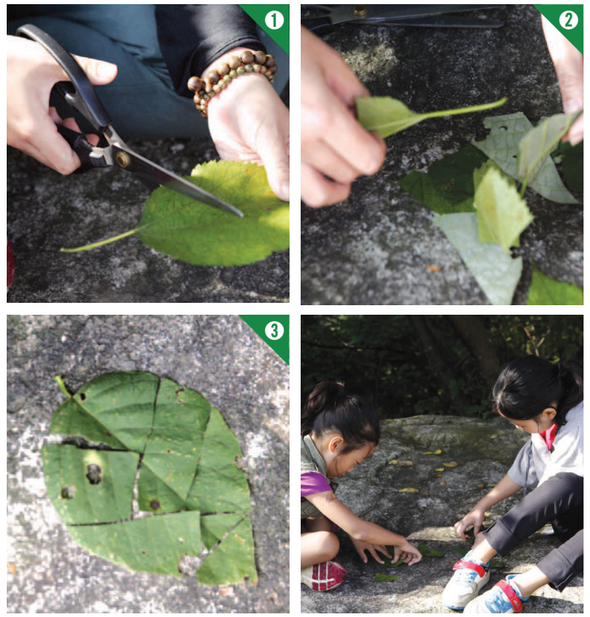
두뇌 풀가동! 누가 먼저 퍼즐을 완성할까?

나뭇잎 퍼즐 맞추기

나뭇잎 두세 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놀이. 아이들이 나뭇잎 조각을 맞출 때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 초록, 노랑, 빨강색의 나뭇잎을 잘라 퍼즐을 맞추는 놀이를 통해 나뭇잎의 잎맥, 구멍 난 부위 등을 살펴보며 자연을 관찰할 수 있다.



How To?



재료
나뭇잎, 가위

나뭇잎 퍼즐 만들기
1 넓적한 나뭇잎을 골라 가위를 이용해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
2 조각난 나뭇잎을 섞는다.
3 원래 나뭇잎 모양으로 퍼즐을 맞춘다.

TIP
- √ 나뭇잎을 잘게 여러 번 자를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
- √ 서로 다른 색,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을 2개 이상 섞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태원에서 떠나는 전 세계 미식여행

세계 음식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김치 마시써효! 불코기 청말 초하요!"를 외치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 이상 놀랍거나 특별한 장면이 아니다. 하지만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것은 국적 불문 해외를 방문한 여행자라면 겪는 필수 경험이 아닐까. 해외에 나가 '아리랑'이나 '대장금'이라 쓰여 있는 간판을 찾아 헤매는 우리처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현지 음식을 그리워한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이태원으로 가자. 메마른 사막에서 힘겨워하는 여행자의 목을 축여줄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글 남지연 **사진** 김희진

모로코 마라케쉬 레스토랑 MARAKECH RESTAURANT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보이는 골목으로 올라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모로코 전통 음식 전문점 '마라케쉬 레스토랑'. 모로코 전통 스튜인 타진이 대표 메뉴이며, 총 다섯 가지 종류의 타진이 있어 취향과 입맛에 맞게 골라 즐길 수 있다.

식전 수프로 먹기 좋은 하리라 수프는 향신료 향이 강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모로코 현지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주문해 볼 것. 메인 요리인 타진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비프 코스타 타진은 진한 토마토 수프와 함께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소고기의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함께 나온 담백하고 고소한 빵을 곁들여 먹다보면 어느새 텅 비어버린 접시를 발견하게 될 것.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할랄 레스토랑이며, 모로코의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기 위해 메뉴가 주기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포털 사이트에는 '마라케쉬 나이트'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43 2층
- 11:30 - 24:00
- 샐러드 5,000원 ~ 15,000원 타진 20,000원 굴라쉬 20,000원
- 02-795-9441



요르단 페트라 PETRA

이태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녹사평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 '페트라'는 요르단 음식을 판매하는 중동 음식점이다. 중동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다면 대접하기 위해 방문하기 좋은 음식점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색다른 음식을 접해보고 싶은 한국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다. 전체적으로 담백한 느낌의 메뉴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메뉴가 재료 본연의 식감이 살아있어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한쪽 벽에 나 있는 큰 창 덕분에 채광이 좋아 밝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페트라의 대표 인기 메뉴인 팔라펠은 병아리콩을 삶아 각종 채소와 함께 섞어 으깬 뒤 동그랗게 튀긴 음식으로, 감자 크로켓과 그 모양이나 식감이 비슷하다. 함께 나온 피타 브레드를 찢은 뒤, 반으로 자른 팔라펠을 소스에 찍어 샐러드와 싸먹으면 담백하고도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할랄 레스토랑이며, 베지테리언을 위한 별도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33 2층
- 11:00 - 22:00
- 팔라펠 8,000원 ~ 12,000원 캅사 18,000원 ~ 20,000원 만사프 24,000원
- 02-790-4433







이집트 카이로바베큐 CAIRO BBQ

이슬람교서울중앙성원 입구 근방에 위치한 '카이로 바베큐'는 이집트 음식과 그 외 중동 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재한 이집트인 등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슬람교서울중앙성원을 방문하는 신자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음식점이니만큼 가성비 좋은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병아리콩으로 만든 호무스 샐러드는 담백한 맛과 식감에 더해지는 올리브유의 풍미가 조화로워 추천할만하다. 가격 역시 2,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니 꼭 한 번 맛보길 권한다. 메인 메뉴 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양다리 볶음밥은 압도적인 비주얼에 눈이 먼저 즐겁다. 자극적인 향신료 없이 최소한의 양념만으로 조리되어 나오는 양고기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 하지만 양고기 특유의 향에 민감하다면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시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할랄 레스토랑이며, 식사 후에는 식당 한쪽에 있는 홍차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5
- 11:00 - 23:00
- 감자 샐러드 2,000원 양 기프타 다우드 바샤 7,000원 양다리 볶음밥 15,000원
- 02-798-1253



Together KOICA를 인터넷으로 만나보세요



코이카 웹진 Together KOICA에는
코이카의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메일진과 카카오진 구독을 신청하고 코이카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Together KOICA> 메일진 구독 신청하기



▲메일진 구독신청 QR코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메일진 구독신청으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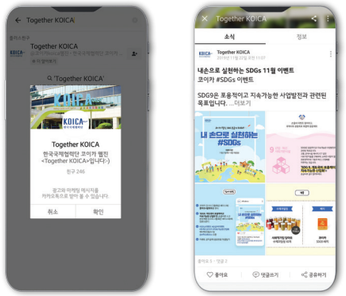
STEP 1 **코이카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한다.
http://www.koica.go.kr/koica_kr/index.do

STEP 2 **방법①** '알림·홍보' 메뉴 클릭 ⇢ 'KOICA 뉴스레터' 클릭 ⇢ 'Together KOICA' 클릭
방법② **KOICA 웹진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

STEP 3 페이지 왼편에 보이는 '뉴스레터 신청 KOICA Newsletter'의 ⊕ 버튼을 눌러 **뉴스레터를 신청**한다.

STEP 4 코이카 메일진 **구독 완료!**
매달 코이카의 즐거운 소식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Together KOICA' 카카오채널 추가하고 카카오진 구독하기



STEP 1 카카오톡 상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코이카', 'KOICA 웹진', 'Together KOICA'를 검색**한다.

STEP 2 Together KOICA **카카오채널을 추가**한다.

STEP 3 카카오진 **구독 완료!**
매달 코이카의 즐거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OICA


KOICA
한국국제협력단